메트로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Entertainment p/16

냉장고까지 꿰찬 전지현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제2656호 www.metroseoul.co.kr

Life p/12

올 설선물 1만원 스타일

누가 더 컸나? 누가 더 세졌나?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한 교실엔 깔깔깔 웃음이 넘쳤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동안 누가 더 키가 크고 힘이 세졌는지 겨루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공무원 300명 입막은 '밥값 19억'

신세계·이마트 직원사찰 '일파만파'

노동부·공정위·경찰 등 '우군 만들기' 조직적 관리
그룹차원서 식대성 경비 대폭증액 접대비 펑펑 의혹

신세계 이마트 앞에서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까지 무기력했다. 노동자를 대변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이 오히려 기업 측에 유리한 정보를 줬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왔다.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는 수백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따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실과 일부 언론매체에서 공개한 '노사관리 대외인적 네트워크' 문서에서 이마트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시청·구청 공무원, 노사정위원회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해 밀착 관리해 왔다. 그 인원만 300명이 넘는다.

이마트의 대대적인 공무원 관리는 신세계그룹 지원에서 기인됐을 소지가 크다.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 인사팀이 2011년 4월 각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노동부 집중 근로감독 예정에 따른 대비 강화' 공문에 따르면 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대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는 같은 달 '점포 예산 증액 진행안'을 만들어 점포별로 식대성 경비를 늘릴 계획을 세웠다. 문건에는 "복수NJ(노조) 기 시행일에 따라 사전 대응 차원에서 각 대관기관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돼 점별 식대성 경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점포별로 월 30만~140만원 수준이던 식대성 경비를 3500만~384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문서대로 증액됐고, 기존 식대성 경비 대부분이 같은 목적으로 쓰였다면 많게는 연간 19억원에 가까운 돈이 공무원 접대 관리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가 노동부 직원으로부터 노동계 정보를 입수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2010년 2월 작성된 '노동계 동향' 문건에서는 10~30대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설립 준비에 들어가자 '외부 협조'라고 지칭한 '노동부 지인'에게서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돼 있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마트 측에 유리한 조언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도 관리대상이었다. 이마트 직원들 사이에 오간 e메일에는 야구경기를 보러간 공정위 직원들에겐 이마트 직원들이 치킨 앙주 등을 제공했고, 102만원치 식사 접대를 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김남희 팀장은 "기업의 부당 노동을 감시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기업에 협조하는 형국으로 노동부는 내부 직원들의 의혹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며 "노동부에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노동부 관련공무원 조사시작

서울시의 정책 또한 이마트 앞에선 빛이 바랬다.

박원순 시장이 비정규직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설한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맨' 제도에 대비 이마트는 강경 대응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명예노동옴부즈맨은 노동자가 e메일이나 전화로 고충을 호소하면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으로 찾아가 상담을 해 주는 제도다.

이마트는 2011년 12월 서울시가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다음 달 바로 '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 사업장 대응 지침' 이란 문건을 만들어 "서울시가 사업장 출입을 강행할 경우, 주거 침입 되거나 불응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채증 작업(CCTV, 캠코더 등) 진행, 물리적 충돌 시 경찰과 형사 연계 처리"를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유착된 이마트 사태가 불거지자 관련 기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23일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혹을 일으킨 일부 감독관들을 시작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이마트 측이 복수노조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가 관계가 인정돼 뇌물죄에, 연관된 공무원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번호순기자 hsson@metroseoul.co.kr

장하나 민주당 의원

"이마트는 흥신소…정 부회장 국회 불러낼 것"

"신세계 이마트는 '이윤 극대화'라는 시욕 때문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경우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대가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적인 노무 관리를 폭로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장 의원은 "대형마트보다 흥신소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는 곳이 유통업계 1위인 이마트"라며 "이번에 밝혀진 이마트의 비상식적 노무 관리 방식은 이미 신세계 산하의 다른 계열사를 포함해 유통업계 전반에 퍼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의 폭로 후 유통업계에서 대대적으로 노무 관련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노웅래 의원과 함께 ▲조직적인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부당 해고된 노동자 복직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신세계 이마트 측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신세계 이마트가 요구사항을 묵살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포함한 책임자를 1월 임시국회에 불러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는 10분의 1도 안 된다"며 "노조 탄압은 물론 비윤리적 경영 사례 등 내부 고발 자료가 많다. 아직 다 살펴보지도 못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장하나 의원이 2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 탄압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완기기자 inbom@

자유로 212㎞로 달린 BMW

경기 지난해 최고 과속車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된 차량 중 최고 속도는 시속 212㎞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경찰청 교통과는 도내 1075개 단속 카메라를 통해 과속 차량을 집계한 결과, 125만5대의 차량이 과속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3452대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셈이다.

단속된 차량 중 최고 속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2시6분 시속 212㎞로 자유로 파주시 탄현면 아쿠아랜드 앞 도로를 달렸던 BMW 차량이었다. 자유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90㎞다.

그러면 과속이 가장 잦은 지역은 어디일까.

경기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 입구 서울 방면 도로가 1만8452건으로 분당에 1위에 올랐다.

◆ 남태령 지하차도 입구 서울 방면 1만8000여건 혈악

다음으로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서울 방면 도로가 1만4271건이었으며 하남시 신장동 창우지하차도 하남IC 방면 도로 1만4243건이었다.

시점과 종점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평균 속도를 계산해 속도 위반을 판별하는 구간 단속의 경우 자유로 이산포IC 인근 서울 방향에서 1만8257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배동호기자 eleven@

다음달 ATM 절반서 마그네틱카드 사용제한

다음달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자신의 현금카드가 집적회로(IC)카드인지를 따져야 한다. 절반 정도의 ATM에서 마그네틱(MS)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IC카드 전환 종합 대책'에서 밝힌 대로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MS현금카드 사용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MS현금카드는 다음달부터 1년간 일부 ATM에서 사용할 수 없고 2014년 2월부터 전면 제한된다. 2~7월엔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된 ATM 50%에서 쓸 수 없고,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용이 제한되는 ATM은 80%로 늘어난다. MS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과 현금서비스는 2015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가맹점은 2014년 말까지 MS카드 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 또는 MS-IC카드 겸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현금카드 6612만 장 가운데 IC카드는 6383만 장으로 96.5%를 차지했다. MS현금카드는 지난해 2월 말 1만785장에서 12월 말 2293장으로 78.7% 줄었다. /박상훈기자 zzz@

커피원두 감별 '큐그레이더'·똥 사진 보고 건강 진단 '아기변성진단가'

내일은 이런 '잡' 대박!

아기 똥을 통해 건강을 진단하는 '아기변성진단가', 커피 원두를 감별하는 '큐그레이더' 등이 올해 신생·이색 직업으로 선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출간한 '2013 신생 및 이색 직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사회 변화에 따라 생긴 새로운 직업과 독이한 직업 33선 및 재직자 인터뷰를 소개했다.

책에 따르면 웰빙 문화 속에서 반려동물사진작가, 에코제품디자이너, 모유영양분석가 등이 새로 등장했다. 이 가운데 아기변성진단가는 아기의 똥 사진을 분석해 아기들의 질병과 발육 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설명해주는 신생 직업이다.

아울러 SNS가 활성화되면서 소셜커머스품질관리자, SNS마케팅전문가, 디지털마케터 등이 떠오르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살 위험군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자살위기상담가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료전문가도 각광받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실버로봇서비스기획자와 공정무역전문가 등은 고령화 현상과 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유망 직업에 뽑혔다.

직업연구센터 김동규 부연구위원은 "7개 트렌드에 따라 미래에 유망한 직업을 선정했다"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자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도서관에 무료 배포될 예정이며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중국도 '대북제재 찬성' 손 번쩍 들었다

북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3차 핵실험 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리바오둥(가운데) 유엔주재 중국대사도 손을 들어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을 선언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 다음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설 차례상 비용 19만4000원…지난해보다 4% 올라

다음달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2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는 설 명절을 20여 일 앞두고 서울 등 6대 도시의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건어류·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19만4950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박에란 한국물가협회 조사담당 상무는 "이는 지난해 18만7360원보다 4% 오른 수치"라며 "이마저도 명절에 다가올수록 더 오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옥기자

입어도 추운 다운점퍼

유명 SPA 브랜드 제품들 솜털 함유량·충전도 등 미달돼 '덜덜덜'

유명 SPA 브랜드 다운점퍼의 솜털 함유량과 충전도가 표시된 내용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외국 브랜드는 국산보다 무겁고 보온성이 떨어지면서 가격은 5배나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이 25일 10개 SPA 브랜드 15개 다운점퍼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라·미쏘·망고 등 3개 제품의 솜털 함유량은 표시된 수치보다 적었다. 조류의 털은 솜털과 깃털로 나뉘는데, 솜털에 많을수록 보온성·촉감·착용감이 좋다. 자라의 경우 표시된 수치(30%)와 실제(20.8%)가 1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났다.

유니클로, 갭, 코데즈컴바인, 로엠, 에잇세컨즈, 미쏘, 자라(2개) 등 7개 제품의 충전도는 한국산업규격(KS) 권장 기준에 못 미쳤다. 충전도는 솜털·깃털 등 충전재가 부풀어오르는 성능을 말하며, 충전도 값이 클수록 따뜻하다.

◆코데즈컴바인·스파오 가장 우수

다운점퍼를 가볍고 무거운 기준으로 나눌 경우, 코데즈컴바인과 스파오가 가장 따뜻하면서도 저렴했다. 반면 바나나리퍼블릭은 스파오(5만9000원)보다 무겁고 보온성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33만9000원으로 5배 이상 더 비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운점퍼를 고를 때는 천연오리털 100% 등의 광고 문구에 속지 말고 솜털과 깃털의 비율, 무게, 충전도 등을 꼼꼼히 따져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sjw@metroseoul.co.kr

에너지 절전 운동 동참해주세요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절기 에너지 절전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수록 뼈 약해지는 여자들

골다공증 환자 44% 급증

최근 4년새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는 2007년 53만5000명에서 지난해 77만3000명으로 44.3% 늘어났다. 특히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 중 92.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7%였으며 60대와 50대는 각각 34%, 22%였다. 50대 이상 장년층 환자가 전체 환자의 94%에 달했다.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연령대는 70대 이상으로 4년 전에 비해 73% 급증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고령화에 따른 전체 노인층의 증가, 현대인의 부족한 운동량, 칼슘이 부족한 식생활, 음주와 흡연, 잦은 약물 복용, 실외생활 시간 단축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환자 중 여성이 절대 다수인 것은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란 설명이다.

/배동호기자

지붕 골조 드러낸 돔구장 최초의 돔구장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서남권 야구장이 12월 말 완공을 앞두고 23일 지붕 골조가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강추위 다음달 중순 풀려

새해 벽두부터 닥친 강추위가 다음달 중순부터 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달 초순까지 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다가 중순부터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23일 내다봤다.

특히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음달에도 비와 눈 소식이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비는 24일 오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음달에도 많은 비와 눈이 올 전망"이라며 "3월에도 비 오는 날씨가 많고 일교차가 크겠지만 4월부터 기온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희기자 uniqu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55> 글 그림 박상철

'공룡' 미래부 초대 수장은?

황창규·김도연 등 거론

정부조직 개편 후속 조치가 끝나면서 차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 수장을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설 부서지만 규모와 기능, 예산 면에서 박 당선인의 강한 정책 의지가 반영되면서 기획재정부에 이어 서열 2위의 부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초대 장관에는 융복합 및 창의성을 강조하는 비정치적인 전문가가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장, 이석채 KT 회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희호기자

브라우니 출세했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한 뒤 홍보대사인 브라우니 인형을 만지며 "너 출세했구나"라고 농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청소식

월곡2동 '얼굴없는 천사' 올해도 왔네

3년째 쌀 300포 기증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월곡2동 주민센터는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3년 연속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kg 쌀 300포대(시가 1350만원)를 기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자는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 기증문의 (2)457-2910

/황윤희기자

에너지 자립고비 공모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다음달 8일까지 '동절기 에너지 자립고비'를 공모한다.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http://energyseoul.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절감 수기, 에너지 사용량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서소문별관 환경정책과에 접수하거나 e-메일(kh/9696@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199-7652

/최동호기자

이동흡 결국 낙마하나

새누리도 반대 기류 확산… 황우여 "업무비로 콩나물 사나"

새누리당 내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쓰면 안 되지"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성태 의원은 이날도 부적격 의견을 고수했다.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김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본회의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적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당론 정할때 아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인준과 관련해 당론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의총에서) 반대 의견도 내야지, 그럼 찬성 의견만 내느냐"는 말로 당내 기류를 대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충동적 호남 홀표' 물벼락 맞은 박준영 박준영 전남지사가 2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울컥진보당 민주통 도의원이 건넨 든 물을 뒤집어(왼쪽) 당황한 표정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있다. 관 의원은 박 지사에게 '충동적 호남 발표' 발언 사과를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정보의원회 제공

연금복권520 제92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7조	553358
		2조	225269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10611
4등	100만원	각조	06545
5등	2만원	각조	[illegible]
6등	2000원	각조	[illegible]
7등	1000원	각조	6, 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1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광호
사장·편집인 정종택
편집국장 조민호
독자서비스 책임 김광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자센터 02)721-6882

힐러리 4년 만에 빚 청산

대선경선 부채 266억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에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당시 '힐러리 대선캠프' 측이 22일 밝혔다.

힐러리 측은 경선 당시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바람에 2500만 달러(약 266억원)의 빚을 져 조금씩 갚기 시작, 지난해 9월 말 7만3000달러로 줄었다가 최근에야 다 청산하고 오히려 20만5000달러 가까이 남았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빚 청산에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지지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새해 1월 6일까지 힐러리의 선거 빚을 갚기 위한 후원금을 보내주는 사람 중 한 명을 선정, 뉴욕에서 자신과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후원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오바마 2기 출범에 맞춰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힐러리에 대해 많은 지지자들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김규현기자 kmkim@

사르코지도 세금 망명?

고세율 피해 런던에 사모펀드 추진설… 사르코지측 "소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영국에 '이시트'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프랑스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 메디아파르를 인용,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 사모펀드 설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디아파르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런던에 10억 유로(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만들기 위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르코지의 계획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설립된 업체는 아직 없다.

그러나 사르코지의 측근들은 "머릿속에서 소설을 쓴 것"이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모펀드 관련 사실은 수사 당국이 사르코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르코지는 세계적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2007년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메디아파르는 사르코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사르코지의 재선을 막고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 유로(약 14억원)가 넘는 고소득자에게 75%의 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 중이다.

◆드파르디외 망명 이어 충격

이에 최근 프랑스에서는 국민배우로 꼽히는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 부유층의 세금 망명이 잇따라 논란이다. 특히 드파르디외에 이어 사르코지의 세금 회피 망명설까지 불거지자 비난 여론이 거세다.

메디아파르는 "사르코지의 계획이 구체화할 경우 드파르디외보다 1000배는 강력한 스캔들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미기자

다보스 포럼 개막 제43회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된 가운데 클라우스 슈왑 회장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탄력적 역동성'을 주제로 5일간 진행된다. /AP 연합뉴스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가장 '섹시'한 여성 정치인 1위는?
규칙 없는 격투기 '스트렐카' 뜬다
콜롬비아 소녀 19% "임신한 경험"

KOSPI

KOSDAQ

Nikkei (일본)	10486.99 (-222.94)
Hang Seng (홍콩)	23635.10 (-23.89)
Shanghai (중국)	2320.91 (+5.77)
Dow Jones (미국)	13712.21 (+62.51)

EXCHANGE RATE

통화	매매기준율
달러	1065.50
엔 (100)	1205.32
유로	1416.90
위안	171.31

CEO의 소주 '참이슬'

각 부문별 선호 브랜드 눈길

대한항공 에쿠스, 발렌타인, 롯데백화점, K2

23일 월간 현대경영이 500대 기업 CEO 191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CEO 명품을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과 에쿠스는 2003년부터 11년째, 발렌타인은 2004년부터 10년째 선호도 1위에 올랐다.

월간 현대경영은 2003년부터 'CEO 명품' 조사를 시행했다. 양주 선호도는 2004년부터 시작했다. 이들 3개 브랜드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최고 자리를 고수하는 셈이다.

이 밖에 CEO들은 갤럭시(양복), 롱샴(핸드백), 까르띠에(시계), K2(아웃도어), 코웨이(정수기), CJ오쇼핑(홈쇼핑), 갤럭시S(스마트폰), SK텔레콤(통신사) 등을 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서울병원, 래미안아파트,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카스(맥주), 우루사(영양제) 등도 인기가 높았다.

가장 좋아하는 소주 브랜드는 지난해 '처음처럼'에서 올해는 '참이슬'로 역전됐고 백화점은 롯데에서 신세계로, 아웃도어 제품은 노스페이스에서 K2로 바뀌었다.

/박상훈기자

바닥 기는 주택시장 영향 땅 낙찰가율 11년래 최저

주택시장 한파가 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동산 경매시장에 나온 전국 토지의 평균 낙찰가율이 65.1%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은 2002~2013년 전국 토지 경매시장의 낙찰률·낙찰가율·응찰자 등을 조사한 결과 낙찰가율이 2007년 84.8%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02년(69.4%) 이후 처음으로 70%선이 무너졌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1~20일) 토지 낙찰가율은 62.3%로 더 내려갔다.

최근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매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토지(면적 68.7㎡)는 3번 유찰된 끝에 감정가(3845만원)의 35%인 1359만원에 낙찰됐다. 이 땅은 2007년 경매에서 당시 감정가 3433만원을 웃도는 4100만원에 낙찰됐었다.

한편 지난해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도 각각 31.6%와 2.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박상훈기자

현대기아차 시총 '엔저의 저주'

환율 덕 본 日 혼다에 밀려 글로벌 2위서 4위로 '미끄럼'

현대 시가총액에서 글로벌 2위였던 현대기아차가 일본 혼다에 밀려 4위를 기록했다.

원화 약세 덕을 많이 봤던 현대기아차가 '엔저원고'라는 새로운 경영환경을 맞아 고전하고 있는 셈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총은 22일 기준 각각 445억 달러, 207억 달러로 합계 653억 달러다. 이는 도요타(1638억 달러), 폴크스바겐(1664억 달러), 혼다(678억 달러)에 이어 글로벌 메이저 업체 중 4위에 해당한다.

현대기아차 시총 감소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아베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200~1300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1100원대까지 내려왔고 조만간 1000원대가 붕괴될 가능성도 크다. 반면 토요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11월부터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10월 말 시총은 679억 달러였으나 2개월여 만에 26억 달러 감소했다. 도요타는 지난해 10월말 1324억 달러에서 지난 22일 1638억 달러로 314억달러 증가했다. 혼다는 542억달러에서 678억 달러로 136억 달러 늘었다. 닛산 역시 13억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면 일본 업체 외에도 BMW, GM, 포드, 다임러 등 세계 주요 업체의 시총이 대부분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말과 지난 18일의 세계 완성차 업계의 주가 등락률을 비교한 결과 기아차의 낙폭(12.4%)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상승률이 14.6%였고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는 각각 21.6%, 26.7% 올랐다.

문제는 당분간 엔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실적이 개선된다. 라이벌인 일본 기업이 엔화 약세 특수를 한동안 누릴 것으로 보여 제품·서비스 차원의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둥글게 둥글게 — 스피커의 변신 덴마크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은 23일 '베오플레이 A9'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총 5개의 스피커가 원 프레임에 들어가 있으며 무선으로 각종 스마트기기와 연동할 수 있다. 336만원

/이금렬기자 leol@

시드는 애플… 순이익 10년만에 감소할 듯

애플의 분기 순이익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예상이 현실이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애플의 2013 회계연도 1분기(2012년 10~12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취합, 애플의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하락한 128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의 분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날 한국투자증권도 신제품인 '아이폰5' 출시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매출총이익률이 하락, 1분기 주당순이익(EPS)이 작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과거 수년 동안 지속됐던 '애플 대세'가 한풀 꺾이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애플이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고자 저가 아이폰 출시 등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다면 삼성전자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애플이 보급형 아이폰을 출시한다면 삼성전자가 맞불을 놓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고 마케팅 비용을 늘리게 돼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훈기자

신상 2G폰 나온다

삼성전자-SKT 손잡고 이달 '와이즈2' 출시키로

삼성전자가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소수 소비자를 위한 휴대전화를 출시한다. 이달 안에 내놓는 SK텔레콤 전용 2세대(2G) 폰인 '와이즈2 2G'가 주인공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는 대부분 3G와 4G를 이용하고 있지만 4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2G 이용객을 위해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다. 국내 제조사가 2G 폰을 출시하는 것은 2011년 LG전자의 와인폰4 이후 처음이다.

23일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와이즈2 2G에 대한 전파 인증을 마치고 가격과 출시 시점 등에 대해 SK텔레콤과 협의 중이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출시한 3G 폴더폰 '와이즈2'와 전체적인 디자인이 비슷하다. 와이즈2의 출고가가 30만원대 후반, 40만원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와이즈2 2G의 가격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제품설명서에 따르면 이 제품은 지상파 DMB와 300만 화소의 카메라, 블루투스, MP3, 사전 등을 지원하며 외장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배터리는 1000mAH(미리암페어시) 용량으로 2시간 충전에 연속 통화 시 280분, 연속 대기 시 2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박상훈기자

분양 관심

'숭인 한양립스' 수요 풍부

서울 종로의 숭인 한양립스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근에 고려대, 성신여대와 같은 대학 캠퍼스가 몰려있어 기숙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사립대 중 가장 많은 학생수가 다니는 고려대는 4만여명, 성신여대는 2만여명으로 총 6만 명이 넘는다.

숭인 한양립스는 지하 1층~지상 17층으로 규모로, 공급면적 31.83㎡ 오피스텔 48세대, 도시형생활주택 68세대 등 총 116세대로 구성된다. 문의 02)412-2320

산양산삼 위탁재배 모집

경기 포천시와 함께 산양산삼특화단지를 조성 중인 잠생고려산삼영농조합법인이 산양산삼 위탁재배회원을 모집한다.

390만원을 납입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에게는 2년생 산양산삼 600주를 키워 제공하며 5년간 위탁 관리(관리비 별도)해 7년근이 되면 책임 수매해 판매하도록 돕는다.

회원이 원할 경우 매년 7년근을 현물로도 지급해준다. 현재 국내산 7년근의 가격은 1뿌리당 3만5000원 내외다.

또 산양산삼엑기스 60병, 토지 132㎡ 등기, 농장시설을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33)433-3885

다이렉트론 대출금리 인하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의 최저 금리가 5.75%로 내려가 신용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큰 힌기다.

서류나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한도와 금리는 1 대 1 대면 상담만큼 유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500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 카드 결제대금으로 대출을 고민하는 고객은 현명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다.

무서류, 무방문, 무담보로 30분 내 대출을 할 수 있다. 문의 1588-5330

카드업계 '넘버4의 반란'

삼성, 점유율 14%로 급상승… KB 등 누르고 신한 이어 2위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신한·KB·현대카드의 삼각편대가 삼성카드의 선전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신용카드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신한카드의 시장점유율이 20.8%로 1위였고 삼성카드 14.1%, 현대카드 13.3%로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KB카드(12.7%)는 4위로 내려앉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2009년까지 신용카드 시장점유율이 10%에 불과했던 삼성카드는 최치훈 사장 취임 후 고객 중심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고객이 부가 혜택을 손쉽게 알고 쓸 수 있도록 숫자 시리즈 카드를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입해 160만 장 넘게 발급했다.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에 행사를 도입한 것도 주효했다.

최치훈 사장은 "차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서 고객 필요에 맞는 실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꼭 갖고 싶은 카드'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카드 시장에서 삼성카드가 약진하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 부문에서 유일하게 업계 1위를 하지 못한 카드시장마저 삼성이 정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생겼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2분기 시장점유율이 전 분기보다 1.4%포인트 줄었다. 2011년 4분기에 시장점유율 12.9%로 삼성카드와 동률을 이뤘던 현대카드만 그나마 시장점유율을 소폭 끌어올렸다.

2011년 4분기 시장점유율 13.4%로 신용카드 업계 2위였던 KB카드는 지난해 2분기에 12.7%까지 떨어지며 빅3에 들지 못했다.

업계 5위 롯데카드는 지난해 2분기에 시장 점유율이 8.8%로 전분기보다 0.2% 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농협카드(6.7%), 우리카드(6.3%), 하나SK카드(3.9%), 외환카드(2.8%)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박선호기자 zen@metroseoul.co.kr

상품권 봉투가 예술! 23일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한복 저고리, 노리개 매듭, 신사임당 민화 등으로 디자인된 상품권 봉투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설 등 같이 3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고객에게 상품권 봉투를 증정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역시 큰손

10대그룹 지분 41조 보유

삼성물산, 제일모직,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누구일까.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2대 주주는?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는 지난해 말 현재 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의 국민연금기금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분가치는 지난 21일 현재 41조83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전체 금액의 61.1%에 해당한다. /박상훈기자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건설산업 – 대한건축사협회 재능기부활동 쉴 없네

해비타트·장학금·건축교실… 산소같은 그들

"재능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운동이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가들이 국민을 위한 특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분야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 '무료 신고 대상 건축물 설계', '원수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무료 해비타트 집짓기 사업 설계' 등의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 총괄 디자이너로서 왕성한 재능기부활동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전개하며 건축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사협회는 건설 인재 육성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전국 건축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현재까지 총 63명에게 3억155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에게 건축의 체험을 통한 건축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어린이건축교실 및 한옥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 창의체험', '친환경 건축 설계 아카데미', '한옥 설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시민건축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건축의 전문성과 보편성을 함께 꿈어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효기자

전국 40만 관객 돌파!
플라잉 뮤지컬 구름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크박스 플라잉 어드벤처
뮤지컬
구름빵
1월 25일(금)까지
빵빵한 조기예매
30%할인!
놓치지 마세요~
2013.2.1~2.5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인터파크 1544-1555
Daum 뮤지컬 구름빵
상상력 영양만점! 우리함께엄마,아빠랑 두둥실 날아올라요~
원작 백희나 작곡 김성균 연출 허승민 주최 주관 후원 한솔교육 Daum

What's New food

올 설선물은 '1만원 스타일'

대형마트들 알뜰족 겨냥 저가세트 등 판매 돌입

대형마트들이 오늘(24일)부터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 올해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알뜰족'을 겨냥한 저가 선물세트 물량을 대폭 늘렸다.

롯데마트는 1만원 이하 초저가 제품을 지난해의 두 배인 110만개 준비했다. 품질과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통큰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한우와 과일 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해 사과·배 혼합세트(각 6개)는 3만5000원, 한우갈비 세트(3.2kg)는 9만9000원이다.

홈플러스 역시 저가 선물세트에 주력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처음으로 '만원 스타일' 제품을 선보여 사과, 배, 김, 식용유 등 100여개 제품을 1만원 이하에 선보인다. 같은 가격대 제품을 일정수량 이상 구매하면 제품을 추가로 증정하고, 제휴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하는 품목은 지난 추석보다 30여 개 늘렸다.

◆ 디지털 세뱃돈 신풍속

세뱃돈용 디지털 상품권도 출시했다. 카드 형태의 충전식으로 원하는 사진과 메시지뿐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다.

롯데슈퍼도 24일부터 선물세트를 판매하며, 24~29일에는 선물세트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한우 꼬리반골 세트 등 6개 품목을 정해 목표 주문수량을 넘기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신용카드 혜택을 강화했다. 24~29일 신용카드(롯데·BC·신한·KB·삼성)로 1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 만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혜누리 상품을 선보여 제휴카드로 해당 제품을 결제할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정관장 홍삼 '할인·적립' 추석이네 KGC인삼공사 정관장이 23일 서울 중구 정관장 을지로본점에서 '소중한 당신 힘내세요' 캠페인을 진행,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된 설 선물 세트를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정관장 홍삼은 오늘(24일)부터 2월 9일까지 구매금액 15만원당 1만원의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KGC인삼공사 제공

온라인몰 '쿠폰 폭설' 쏟아진다

실속세트 최대 84% 할인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몰이 파격 프로모션을 통해 설 민심 잡기에 나선다.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고 다양한 쿠폰을 제공한다.

옥션은 25일까지 매일(주말·공휴일 제외) 5종류씩 총 50가지 선물세트를 최대 84% 할인한다. 1만원대 미만 생활용품부터 10만원대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양하다. G마켓은 다음달 1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오늘만 특가' 코너에서 4종류 선물세트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식품 카테고리에서 다량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매일 선착순 1500명에게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구매 금액 50만원 이상 5%, 70만원 이상 7%, 100만원 이상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1번가는 '쇼킹드림' 행사를 열고 40~60% 가격을 낮춘 기획 상품 100여 종을 선보인다. '한우갈비 2.4kg 세트(정가 16만9000원)'는 8만9000원, '한우 정육 1.8kg 세트(7만9000원)'는 3만9900원이다.

롯데닷컴은 'CJ 스팸 DIY 세트(2만5900원)'와 '올리타리아 포도씨유 500㎖ 2병·해바라기씨유 500㎖ 1병·발사믹식초 250㎖ 1병(1만9500원)' 등 '밥상 알짜형' 실속세트를 대거 준비했다. /박지원기자

풀무원 생라면 '오징어 짜장'

풀무원식품이 23일 생라면 '자연은 맛있다'의 다섯 번째 신제품 '오징어 짜장'을 출시했다.

캐러멜 색소 대신 오징어 먹물을 이용해 짜장의 색을 냈고, 돈육·양파 볶아낸 마늘 등 자연 재료 특유의 감칠맛을 살렸다. 4개들이 한 봉지에 4980원.

동서 샌드쿠키 '골든 오레오'

동서식품은 23일 황금색 샌드위치 쿠키 '골든 오레오'를 출시했다. 기존 검은색 대신 연갈색 오레오 쿠키 사이에 바닐라 크림을 넣었다. 할인점 판매가 기준 100g 1팩 1000원, 300g 3300원.

동원F&B '쎈쿡 영양보리밥'

동원F&B가 100% 국산 찰보리를 넣어 만든 즉석 보리밥 '쎈쿡 건강한 영양보리밥'을 출시했다. 100% 국산 찰보리와 백미를 5대5의 비율로 섞었으며 초고압 공법을 사용해 찰보리의 찰기를 살렸다. 가격은 1980원.

20~30대 女 자궁근종 '조심'

자궁근종 환자들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궁근종은 주로 40대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대여성암병원에서는 여성들이 본인이 자궁근종인지 아닌지 쉽게 의심해볼 수 있도록 14가지의 자궁근종 증상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이사라(사진) 교수는 "젊은 여성들의 자궁근종 증가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식습관 변화로 인한 비만율 증가, 이른 초경, 과도한 스트레스, 옷차림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센시아'로 정맥건강 챙기는 센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설 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작용이 적고,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생약 성분 제품이라면 더 좋다.

대표적인 생약 성분 의약품으로는 동국제약 잇몸약 '인사돌'과 여성 갱년기치료제 '훼라민Q',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 등이 있다. 이 중 센시아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주성분인 식물 성분 정맥순환 개선제로 유럽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새로운 약물이다. 식물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유럽에서의 사용 경험과 다수의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센시아는 정맥의 탄력 회복과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항산화 효과 등으로 정맥순환장애를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센시아 복용 1개월 이후 통증, 감각 이상, 경련, 둔중감 등 정맥순환장애 증상이 70% 이상 개선됐으며 다리의 부종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지기자

'센터폴 디자인 어워드' 패션샛별 띄웠다

박혜민씨 등 3명 수상

센터폴이 미래 패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에 앞장선다.

트레킹 전문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은 최근 대치동 서울지사에서 '패션대학 후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센터폴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14개 대학 패션 관련 학과 학생들이 2013년 가을·겨울 시즌을 겨냥한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출품한 가운데 최종 3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금상은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박혜민 학생이 차지했으며 상금 150만원과 부상을 받았다. 은상은 상명대 패션디자인학과 우종숙, 동상은 영남대 의류패션학과 김동은으로 각각 100만원·50만원의 상금과 부상을 받았다. 문의 www.centerpolekorea.com /박지원기자

해돋이에도 앙코르 있다

1월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대한민국 '끝섬' 일출 명소 울릉·백령·가거·마라도로

새해 첫날 세웠던 다짐들이 흐지부지 될 때다. 1월이 가기 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끝섬 일출 나들이' 명소를 추천했다.

독도는 우리 국토의 동쪽 끝에 있지만, 3월까지는 독도로 오가는 정기 배편이 운항하지 않는다. 아쉬다면 그 다음 동쪽 끝인 울릉도로 눈을 돌려보자. 일출 명소로는 내수전 일출 전망대가 으뜸으로 꼽힌다.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일출과 함께 저동항, 죽도, 섬목까지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 백령도에서 맞는 새해 해돋이는 각별하다. 북녘 땅 황해도 장연군 너머로 해가 솟아올라서다. 용기원산과 용기포 등이 명소로 꼽히는데, 맑은 날에는 북한 땅까지 또렷하게 보인다.

가거도는 신안군의 1004개 섬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일출 포인트는 등산로를 따라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섬등반도. 김부연 하늘공원과 장재 전망대를 지나 해뜰 곳에서 일출을 보고 섯개재를 거쳐 내려오는 원점 회귀 산행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자리한 마라도의 해돋이 명소는 '대한민국 최남단비'와 '마라도 등대공원(사진)'이다. 일출을 본 다음에는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면 된다. 면적이 작아 섬을 한 바퀴 도는 데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차밭 수놓은 루미나리에

27일까지 보성 일원 열려

온 가족이 은은한 빛의 향연을 즐기며 새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전남 '보성차밭 빛 축제'가 '빛으로 전하는 희망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전남 보성군 봇재다원, 다향각 전망대 일원에서 열린다.

대형 트리 위주의 축제 이미지에서 벗어나 참여형 축제, 예술 축제, 친환경 축제의 3요소를 특화하기 위해 자연경관과 바람, 환경친화적 소재 등을 활용했다.

보성차밭 능선에 가로 200m, 세로 300m의 한 폭의 산수화 같은 세계 최대의 대형 연하장을 형상화하고 빛의 거리, 소원탑, 산책로, 소원나무, 모빌 등 화려한 볼거리를 채웠다. 특히 대형 연하장은 빛 축제 대표 조형물이다. 비닐, 차광막, 파이프, 조명 등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미술의 회화성과 조명을 접목한 새로운 연출로 주·야간의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람객과 함께 완성해가는 소망 프로젝트' 행사로는 펜 드리만들기, 소망 깃발 등이 있으며 대형 트리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와 10주년 기념 구조물을 설치해 눈길을 끈다.

26일 토요일 밤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이 마련돼 있다. 행사에 쓰는 모든 전구를 LED로 바꿔 전력 소모를 크게 줄였다.

/김보라기자 bora@

파크 하얏트 부산 내달 오픈

'파크 하얏트 부산'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다음달 18일 문을 연다.

파크 하얏트 부산은 전 세계에서 31번째, 한국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호텔이다.

건물은 지상 34층, 지하 6층 규모로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269개의 일반 객실과 69개의 스위트룸을 갖췄다.

문의: busan.park.hyatt.com

라카이 리조트 겨울 패키지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가 다양한 겨울 패키지를 선보였다.

힐링 패키지(20만7000원부터)는 다음달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풋트리트먼트·객실 1박·조식 2인으로 구성됐다. 강릉~삼척 바다열차 2인 이용권과 객실 1박·조식 2인이 포함된 바다열차 패키지(31일까지 이용 가능)는 19만5000원부터다.

문의: 1644-3001

'키자니아 타임캡슐' 이벤트

키자니아가 새해 소망을 담은 편지를 1년 뒤에 보내주는 '키자니아 타임캡슐' 행사를 다음달 21일까지 실시한다. 또 어린이들의 소망과 꿈, 고민을 영상으로 제작한 '2013 이루어져라!'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문의: www.kidzania.co.kr

아트건축 투어·트레킹… 홍콩이 부르네

지난 2년 연속 한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에 성공한 홍콩관광청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5% 많은 한국인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콩관광청 권용집 지사장은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2013년에는 홈페이지·SNS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 메가 이벤트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며 "특히 예산의 50% 가량을 부산 시장을 강화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광청은 여름·핼러윈·와인&음식·겨울 구정 등 기존의 핵심 5개 축제 외에 아트 건축 투어, 트레킹 투어 등 3개 전략 상품을 소개해 홍콩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7급 공무원' OST 참여

2PM의 택연과 준호가 MBC 수목극 '7급 공무원'의 OST에 참여해 멤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찬성이 엘리트 요원 도하 역으로 변신한 이 작품을 위해 택연과 준호는 각각 랩과 보컬을 맡아 길로(주원)와 서원(최강희)의 테마곡인 '너에게 가는 길'을 불러 힘을 보탰다. 제작진은 "사랑의 메신저 같은 곡으로 찬성의 절친들이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플레이 가이드' 주인공

손담비가 25일 첫 방송되는 tvN 시추에이션드라마 '플레이가이드'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극중 의뢰인의 연애 고민을 해결해주는 회사 '러브 에이전트'의 CEO 역을 맡았다. 상대역에는 박민우가 캐스팅됐다. 손담비는 "실제로 알고 있는 연애 비법 공개는 물론 편한 누나 같은 모습부터 카리스마 있는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日아카데미 신인배우상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이 3월 8일 열리는 제36회 일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신인배우상을 수상한다.

그는 지난해 일본 영화 '황금을 안고 뛰어라'에서 유학생으로 가장한 북한 출신 스파이 모모를 연기했다. 일본 아카데미상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심사해 총 1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표한다.

'런닝맨' 출연…설 특집 녹화

추성훈과 이시영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동반 출연한다.

프로 격투가 선수인 추성훈과 복싱 여자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에 오른 바 있는 이시영은 각자의 이미지에 걸맞게 파워풀한 모습을 선보이며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진행된 이날 녹화분은 설 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난 록에 목말랐다… 늘"

감성적인 보컬리스트이자 송라이터로 실력을 인정받아온 JYJ의 김재중(27)이 첫 솔로 앨범 '아이'를 발표했다. 댄스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해온 그는 그동안 갈망한 록 음악을 전면에 내세워 변신을 시도했다. 시나위의 5대 보컬 김바다가 처음으로 다른 가수를 위해 곡을 썼고, 공동 프로듀싱을 맡았다. 김재중은 6곡 중 5곡의 작사를 맡아 자신의 삶과 음악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늘어놓았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 왜 록 장르를 택했나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자주 부르던 장르다. 공연 때도 솔로 무대에서는 늘 록을 불렀고, 일본에서는 록으로 싱글을 내기도 했다.

- 록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마니아들의 시선이 부담되지 않았나

록이나 힙합은 자기 표현이 자유로운 장르라 누군가가 거기에 도전할 때 편견을 갖고 볼 수 있다. 나도 그런 생각에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뼛속까지 로커인 분들이 크게 환영해줘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 김바다와 작업하게 된 계기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고, 거절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조심스럽게 작업을 부탁했다. 흔쾌히 '원 키스'라는 곡을 써줬고, 정말 좋아서 한 곡을 더 부탁해 타이틀곡인 '마인'을 받았다.

- 김바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

보컬 톤을 비롯해 록에 필요한 발성, 감정 전달 등 테크닉적인 부분을 거의 모두 새롭게 배웠다. 녹음 때는 난이도 부스 안에서 발성 연습을 했는데, 9년 전 신인 때 무서운 작곡가에게 지도받던 느낌이었다. 하지만 조만간에도 MBC '나는 가수다2'에서 워낙 인상 깊게 봐 마치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 타이틀곡 가사는 누구에게도 활동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것 같다

자신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용감하고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나만의 영역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잘 살고 있으니,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는 뜻이다.

- 솔로 앨범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멤버들 개인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연기자가 아닌 가수 김재중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다. 지난해 초 앨범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연기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곡을 썼다. 록은 처음이라 곡을 쓰기가 정말 힘들었다.

- 록이다 보니 무대에서 비주얼 변화도 클 것 같다

새 작품에서 연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액세서리와 머리 색깔 변화를 최대한 자제하며 살았다. 드라마에 벌거벗겨진 듯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좋았다. 이번에는 모든 걸 벗고 비주얼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 첫 솔로 앨범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는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장르에 자작곡도 넣었고, 나의 메시지도 담았다. 각 트랙마다 창법을 달리하며 여러 감성을 표현했다. 그런 노력들을 듣고 느껴줬으면 좋겠다.

- 최근 일본 기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현지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다

먼저 공연으로 일본 팬들과 만나고 싶다. 음반 유통 경로에서 자유를 얻는다면 정식으로 JYJ 일본 음반을 내고 싶다.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일본 방송에도 나가고 싶다.

디자인/송지영

졌다 '연하남 스캔들' 이미숙

10억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탤런트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이미숙이 이상호 전 MBC 기자·유상우 뉴시스 기자와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한 이 기자는 "'연하남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한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해명하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보다 앞서 이미숙과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던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며, 유 기자가 이를 보도했다.

이어 이미숙은 "허위사실로 명예와 인격을 훼손당했다"며 7월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권보람기자 kwon@

또 졌다 '표절 논란' 박진영

김신일에 5700만원 배상

표절시비에 휘말린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곡가 김신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5693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김신일은 박진영이 작곡한 KBS2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박진영의 곡 후렴구 4마디가 김신일의 것과 유사하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박진영에게 2160만여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으며 박진영은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박진영은 항소심 공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다시 한번 다퉈봐야겠다"고 상고 의사를 드러냈다.

◆ 사기혐의 강성훈 선고 연기

한편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의 공판도 이날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강성훈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선고를 3주 뒤인 다음달 13일로 미뤘다.

/박진영기자 lsk0427

'학교'는 역시 스타제조기

이종석 연기자 자리매김 확실
모델 출신 김우빈 다크호스로
곽정욱은 강렬한 연상 눈도장

이종석·김우빈·곽정욱 등 KBS2 월화극 '학교 2013'의 남자 배우 3인이 스타로 발돋움해 눈길을 모은다.

장혁·공유·조인성 등을 배출하며 스타 등용문으로 평가받은 '학교' 시리즈의 명맥을 잇는 이 드라마는 이번에도 스타성과 연기력을 갖춘 신예를 대거 찾아냈다.

그중 이종석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앞서 SBS '시크릿 가든'과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으로 얼굴을 알린 그는 과거 싸움 '짱'이었던 따뜻한 반항아 고남순 역을 눈에 띄게 발전한 연기력으로 소화해 연기자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델 출신의 훈훈한 외모로 현재 의류·통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CF 모델 러브콜도 잇따라 받고 있다.

카리스마 넘치는 전학생 박흥수 역의 김우빈도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 역시 모델 출신으로 극중 특유의 존재감을 뽐내면서 고남순과 뜨거운 우정을 주고받는 연기로 여심을 설레게 했다.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문제아 오정호 역의 곽정욱은 이번 작품을 통해 재발견됐다. 연기 14년 차 아역 출신인 그는 방영 초부터 실제 일진 학생을 연상시키는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이 스타로 발돋움한 데에는 탄탄한 대본도 큰 역할을 했다. 이 드라마는 학교폭력, 왕따, 교권 추락, 기간제교사, 입시만능주의 등 학교의 씁쓸한 현실을 실감나게 표현하면서 방황하는 10대들의 따뜻한 우정을 그려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22일 방영된 15회 시청률은 전주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5.7%(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2회 종영만을 남겨놓고 있다.

/박진영기자 lsk0427@metroseoul.co.kr

이준 "거짓연기 못하겠다" 글 파장

엠블랙 이준의 "거짓 연기" 심경 글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가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 제이튠캠프는 23일 "이준이 드라마와 영화·예능활동을 병행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했지만 소속사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심적으로 지쳐있던 이준이 감성적인 글을 남겼다"고 해명했다.

이준은 이날 새벽 공식 카페에 "내가 로봇인가? 누굴 위해 계속? 참을 만큼 참았고 나에게도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은 있나? 눈에 보이게 속이는 것도 죄송스럽고 난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짓연기 못함"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소속사가 스케줄 조율 문제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MBC '우리 결혼했어요'와 관련된 심경글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달 초 이준과 가상 부부로 출연중인 오연서가 이장우와 열애설에 휘말리자 제작진은 "본인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라며 방송을 강행한 바 있다. 오연서는 방송을 통해 이준에게 눈물로 사과했으며, 이준 역시 "너만 당당하면 된다"고 상대를 감쌌다.

/권보람기자 kwon@

전지현 '주부 CF퀸'

지펠 광고모델 발탁

배우 전지현이 결혼 후 처음으로 광고에서 주부의 일상을 드러낸다.

그는 삼성전자 가전 브랜드 지펠의 모델로 발탁돼 기존의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와 함께 한층 성숙한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 온에어를 앞두고 23일 공개된 사진에서 전지현은 아름다운 주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주방에서 행복하게 요리를 하는 모습은 과거 'CF 퀸'으로 활동하던 때의 이미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삼성전자 마케팅 관계자는 "영화 '도둑들'의 성공으로 결혼 전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지현이 여자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모델로 적격이라 판단했다"며 "여성들에게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지현은 31일 개봉하는 영화 '베를린'에서 전작과 다른 연기 변신을 한다.

/유순호기자 suno@

유인영·나르샤 감독 변신

스마트폰 영화제 멘토스쿨 참여

유인영 나르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나르샤와 연기자 유인영, 일본 여배우 후지타니 아야코가 스마트폰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올레 국제스마트폰 영화제 측은 23일 "현직 감독과 스타가 멘토와 멘티로 만나는 '멘토스쿨'을 통해 이들이 감독에 도전한다"며 "나르샤는 이호재 감독에게, 유인영과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의 딸로 잘 알려진 후지타니는 이무영 감독과 정정훈 촬영감독에게 각각 사사한다"고 밝혔다.

나르샤와 유인영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데뷔 소감을 밝힐 예정이며, 영화제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조성준기자

할리우드 '차스테인 전성시대'

주연작 박스오피스 1·2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유력

요즘 할리우드는 제시카 차스테인의 독무대다. '마마'와 '제로 다크 서티' 등 주연작 두 편이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24일과 3월 7일 차례로 개봉될 공포영화 '마마'와 액션 스릴러 '제로…'에서 차스테인은 같은 배우란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다른 외모와 느낌을 선보인다. 애인의 두 조카를 모성으로 위탁…인에게서 구해내려는 펑크록 뮤지션과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을 선두지휘하는 CIA 민간 요원을 각각 연기한다.

상복도 터졌다. '제로…'로 지난주 열린 제7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고, 다음 달 개최될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우주연상 수상이 유력하다.

제로 다크 서티

1977년 미 캘리포니아주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차스테인은 여섯 살 때부터 무용을 배우기 시작해 청소년기를 댄스 공연단에서 보냈다. 이후 줄리어드 스쿨에서 로빈 윌리엄스로부터 받은 장학금으로 드라마 연기를 수학했다. 2004년 TV 시리즈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우리에겐 브래드 피트의 헌신적인 아내로 출연했던 '트리 오브 라이프'와 허영기 많아 보이지만 심성은 따뜻한 백인 주부를 연기했던 '헬프' 로 2~3년 전부터 얼굴을 알리고 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고뭉치 식구 '고령화 가족' 크랭크업

박해일·윤제문·공효진·윤여정·진지희가 사고뭉치 패밀리로 뭉친 '고령화 가족'이 지난주 모든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돌입했다.

천명관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는 개성 만점의 삼 남매가 엄마와 다시 모여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박해일과 윤제문은 실패 영화감독 인모와 염치없는 백수 한모를, 공효진은 결혼에 가장 쉬운 로맨티스트 미연을 각각 연기했다.

윤여정과 아역스타 진지희는 엉뚱한 성격의 엄마와 미연의 사춘기 딸 민경으로 출연했다. 메가폰은 '파이란'과 '역도산'의 송해성 감독이 잡았다.

박해일은 한강 둔치에서 마지막 촬영을 끝낸 뒤 "유독 추운 올 겨울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괴물 면면이나 궁금하고 개성 넘치는 조합이었다"고 크랭크업 소감을 밝혔다. 개봉 일정은 미정.

/조성준기자

이준익 '소원'으로 다시 메가폰 잡는다

상업영화 은퇴를 선언했던 이준익 감독이 톱스타 설경구와 손잡은 신작 '소원'으로 복귀한다.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지울 수 없는 상처에 시달리는 한 소녀와 가족이 희망을 딛고 일어나는 내용의 휴먼 드라마로, 설경구는 소녀의 아빠를 연기한다"며 "올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상반기 중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총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2 Do you speak English? 언어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평으로합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Does your family speak Chinese?
B Yes. 우리 부모님 둘 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하세요. But 전 중국어를 미국식 억양으로 말해요.
A 당신의 부모님은 몇 개 국어를 구사하세요?
B Two. 그분들은 중국어와 영어 둘 다 구사하세요.

정답 Both of my parents speak Chinese fluently. / I speak Chinese with an American accent. / How many languages do your parents speak? / They speak both Chinese and English.

생생영어팁

▶ Wow, you don't have any accent!
와, 모국어의 발음이 전혀 없네요!

accent는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말로는 '발음, 말투'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는 영어 발음이라고 하면 p, f의 구별, r, l의 정확한 발음 등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Korean accent는 영어의 억양을 한국식으로 말하는 경우, 즉 영어는 문장의 끝에 주로 힘을 주는데 한국식으로 문장의 앞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또 steak[스테익]를 발음할 때 [스테이크]라고 발음하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

You don't have any accent!는 '당신의 영어에선 모국어식 발음이 느껴지지 않네요!'라는 말입니다. 칭찬으로 하는 말이니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TOEIC Starter

토익에 자주 나오는 동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accept	동 수락하다 acceptance 명 수락	accept the proposal 제안을 수락하다
confirm	동 확인하다 confirmation 명 확인	Please confirm your reservation in advance. 예약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ribute	동 기여하다, 기부하다 (to) contribution 명 기여, 기부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하다
demonstrate	동 (사용법을) 시연하다, 시위하다 demonstration 명 시연, 시위	demonstrate a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을 시연하다
fund	동 자금을 대다 명 자금	fund the development of a new drug 신약 개발에 자금을 대다
host	동 주최하다, 진행하다 명 진행자	host the reception 환영회를 주최하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5. Propose a solution

음성 메시지 듣고 이해하기

• 문제 파악하기

But it hasn't arrived yet. 그러나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에서 문제 상황은 대체로 배경 상황 설명이 끝난 뒤에 시작된다.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은 대부분 "But / However / The problem is that ~"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된다.

[물건 및 서비스 관련 문제점]
But it is hard to make a reservation. 그러나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However, there were some missing items. 그런데 빠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 상황 관련 문제점]
But our schedule is tight to finish the project. 그러나 프로젝트를 끝내기에는 스케줄이 빠듯합니다.
The problem is that I don't have any experience. 문제는 제가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상황 관련 문제점]
However, I am afraid that I will lose customers. 그러나 저는 고객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I don't know what to prepare. 문제점은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장원삼·노경은 한국 V 키워드!

김인식 위원장 "불펜 싸움에 WBC 승부 갈려… 국제대회 통할 것"

1·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표팀을 이끈 김인식(66) 전 감독이 이번 3회 대회 때 한국팀의 핵심 선수로 장원삼(삼성)과 노경은(두산)을 꼽았다.

김 전 감독은 "대표 선수 구성을 볼 때 공격과 수비는 1~2회 대회 당시 전력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결국 투수가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으로 WBC 대표 선수 선발에 깊숙이 관여한 그는 "류현진·김광현·봉중근 등 좌완 투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마운드를 구성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불펜 싸움에서 대표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13명으로 이뤄진 대표팀 투수 중 좌완은 장원준(경찰야구단)·장원삼·차우찬(삼성)·박희수(SK) 4명이다. 이 중 가장 믿을 만한 불펜 요원은 지난해 8승1패 6세이브 34홀드, 방어율 1.32를 기록한 박희수뿐이다.

장원삼

노경은

박희수 혼자 일본과 미국 등 외국 타자들이 즐비한 강팀에 맞서는 건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김 위원장은 선발과 불펜을 오갈 좌완 요원으로 장원삼을 지목했다.

2011 아시아시리즈에서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장원삼은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다승왕(17승)과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잇달아 석권하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송곳 제구력에 체인지업을 장착해 기량을 끌어올렸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 국제대회 경험도 많아 이번 대회에서 선발과 계투로 뛸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또 노경은은 지난해 정규시즌에서 12승6패 7홀드, 방어율 2.53을 기록하며 두산 선발진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시속 150㎞에 육박하는 빠른 볼과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를 잘 던진다.

김 위원장은 "노경은이 제구 능력을 갖춘 투수는 아니나 볼 끝 움직임이 심한 볼을 던진다. 컨트롤이 좋지 않다는 그의 약점이 오히려 처음 보는 상대팀에 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김보경 챔피언십 베스트 11

김보경(24·카디프시티·사진)이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뽑혔다.

챔피언십은 23일 한 주간 열린 경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11명으로 구성한 '이주의 팀' 22주 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왼쪽 윙어로 김보경을 선정했다.

김보경은 20일 챔피언십 28라운드 블랙풀과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9분 선제골을 터뜨려 시즌 2호골을 신고했다. 챔피언십은 "김보경은 공대를 맞고 튀어나온 동료의 슈팅을 잘 처리해 득점으로 연결해 팀 승리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카디프시티에 입단한 김보경이 주간 베스트 11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준기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성화봉송 스타트!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식 행사를 갖고 장도에 올랐다. 김기용(왼쪽) 경찰청장이 첫 번째 성화 봉송 주자인 지적장애인 수영선수 한진웅과 함께 성화봉을 들고 뛰고 있다. 올림픽 대회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평창 일원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휘닉스파크배 크로스대회 열기

매주 일요일 예선 — 평창 올림픽 코스 미리 경험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제2회 휘닉스파크배 스키·스노보드 크로스대회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리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마련된 이 대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예선전을 펼치고 다음달 24일 왕중왕전을 벌인다.

예선전은 각 조별로 4명이 대결해 경기 코스를 빠르게 완주한 1·2등에게 왕중왕전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노보드 크로스 부문 우승자에게 150만원(여자 100만원), 스키 크로스 부문 1위에 100만원(여자 70만원) 등 푸짐한 상금과 경품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휘닉스파크 홈페이지(www.pp.co.kr)에서 하면 된다. 예선전별로 각 종목당 선착순 120명(남자 80명·여자 40명)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채경석 휘닉스파크 홍보팀장은 "경기가 올림픽 코스인 도브, 듀크 슬로프에서 진행돼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코스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준기자

전남 "풀럼의 윤석영 테스트 제의 거절"

잉글랜드 풀럼이 국가대표 수비수 윤석영(24·전남·사진)에게 입단 테스트를 제의했지만 전남이 이를 거절했다.

전남 구단은 23일 "풀럼으로부터 최근 입단 테스트를 제의하는 연락을 받았다"며 "공식 오퍼가 아니고 단순한 초대장이라 바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런던올림픽에서 기량을 입증하고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선수를 불러 시험하겠다는 제의가 무시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윤석영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구단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위를 달리고 있는 풀럼은 시즌 중반 극심한 부진에 빠져 마틴 욜 감독이 경질 위기에 놓여 있다. /김민준기자